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안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도 노예가 되지 말라

마음공부의 필요성

질문 요즘은 정신세계에 관심을 갖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삶을 즐기다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마음공부를 해야 할까요?

답변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정신이 없으면 무효예요. 육신이 무효라고요. 송장이 된단 말이에요. 정신과 그 자기 마음, 이렇게 해서 총동원해서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언제나 빼놓고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는 폭이 되죠, 자기가 알기를.

본래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영화배우들이 감독에 의해서 모든 거를 소임을 맡아 가지고 영화 탤런트가 돼야 되는데, 감독을 쑥 빼 버리고 자기 자유껏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세계의 감독이라는 자체의 참자기가 있고 지금 물질세계의 현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아니게끔 같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그거를 납득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겠죠? 정신세계를 모르면 지금 현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살기가 점점 급박해져요.

예를 들어 지금 과학이 발전이 돼서 로켓이 올라가고 컴퓨터가 이렇게 저렇게 되고 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도, 비행기가 간다 이러면 컴퓨터에 의해서 나온 대로 이게 조정을 해야 하지만 내가 마음먹는 대로 비행기가 움죽거린다면 그건 첨단의 일이에요. 이 공부가 그러한 공부예요. 자기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중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중세계를 굴릴 수가 없죠. 중세계가 만약에 버스라면 버스 속에 다 타고 여러분이 다녀도 버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죠? 그 버스 안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유 권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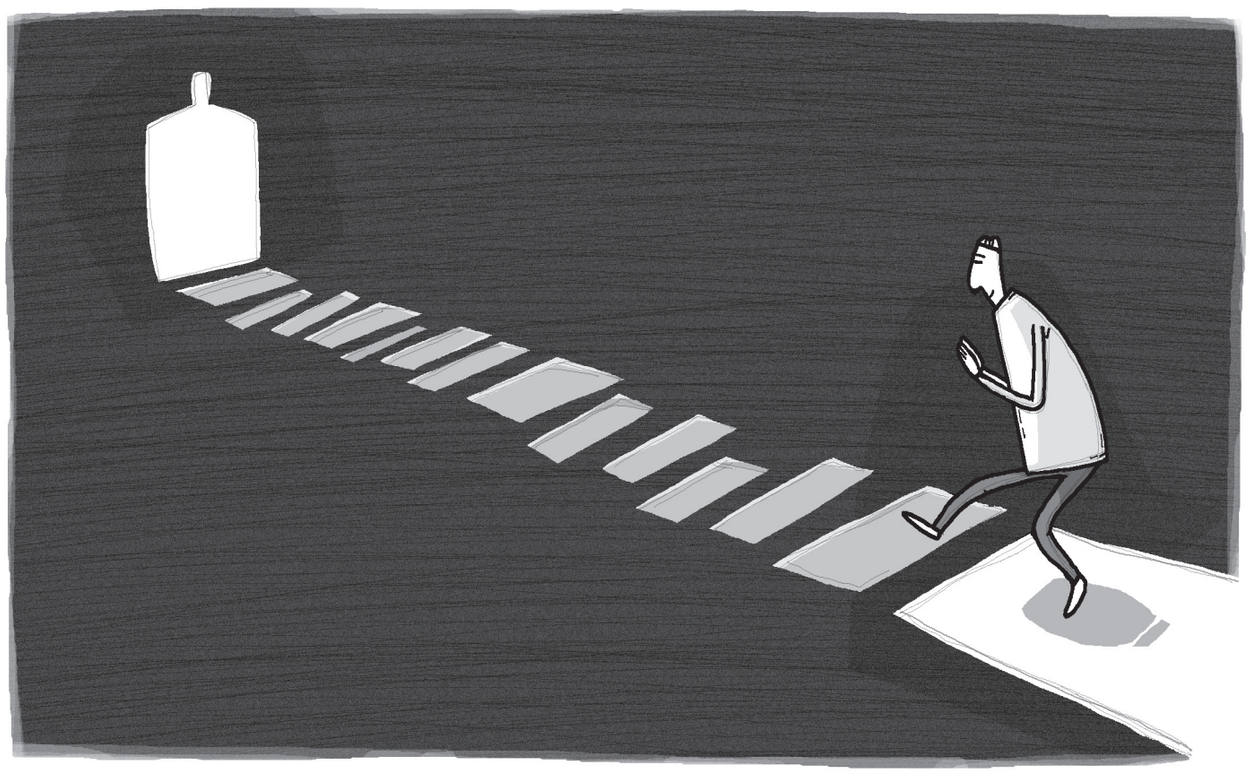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 거와 같이 자기가 정신계에 집중을 안 하고 모른다면 물질계에도 발전이 못 돼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테두리가 있어서 요거는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즉 말하자면 과학이라는 테두리에 덮여 있는 뚜껑이 덮여 있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런데 글로 써 놓는 거는 고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의 뚜껑을 파헤쳐야 진짜 과학이 나올 수 있어요. 자유, 자유권의 과학이요.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고서, 앞으로 드문드문 그런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전에 내가 한 스무 살 가까웠을 때 그 접시비행기가 뜨고 그랬어요. 그럴 때 난 생각했어요. '접시비행기는 자유권을 가진 그 마음으로서 그대로 움죽거리는구나.' 하는 거를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세계를 넘어 볼 수도 없고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풀어 나가는 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저 우주 세계를 가려도 한 찰나예요. 또 바로 앞을 내다보는 거나 저 우주 세계를 내다보는 거나 똑같아요. 맞먹어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이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안의 눈을 갖는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듣는 것도 도가 아니요, 뭐, 이 사물의 모든 거를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말을 하는 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남의 속을 아는 거, 어디서 온 거, 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신족통, 이 모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 오신통 가운데서는 누진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거기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이라는 게 이 진리이니까요. 이 진리를 벗어나야 진리를 굴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천차만별의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에는 금이 모이는 데지 넝마나 무쇠가 모이는 데가 아니죠. 또 무쇠전에 금이 갈 리 없죠. 넝마전에 금이 갈 리 없고 깡통 공장에 금이 갈 리 없고.

사람 사는 것도 그래요. 모두 차원에 따라서 노동하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 공무원들, 또 기사들, 또 정치인들, 종교인들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차원대로 모두 살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가 같이 모이지 말라 그래도 같이 모여요.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여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죠. 누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스스로서 모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더러 가르치지 않아도 금반지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져가시겠어요? 금방으로 가져가죠? 누가 이래라저래라 안 해도 그 물질을 봐서, 이게 어느 차원인가 봐서 아주 차원대로 그냥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들의 생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모르고야, 사대 성인들도 다 말씀하셨죠. 모두가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이랬거든요. "너부터 모른다면 이 우주의 섭류를 다 모르느니라. 너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류를 알며 상대성 원리를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있기 때문에 너를 먼저 알고 너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태양력을 받아서 전력으로, 갖은 각색의 용도로 다 써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끓어올라요

질문 무슨 인연인지 회사에 같이 일하는 한 동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끓어올라 힘들어요. 그 인연도 저를 공부시키는 주인공의 나툼이겠지요?

답변 그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 게 전부 문수라고 그러죠. 요놈! 이게 주자거든요. 주걱이 아니라 주자예요.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액면 그대로 듣지 마세요. 주걱이 주자고 바로 이 방울방울 나오는 것이 요놈, 요놈도 고놈이고 요놈도 고놈이고 요놈도 고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전부 고놈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